

## 절세의 애국자, 조국해방의 은인

1945년 8월 15일, 백두화산대  
가 수천년의 잠을 깨고 다시 분  
출하려는가, 온 삼천리강토가 통  
채로 드릉드릉 울리었다.

삼천만이 높아도 낮아도 제  
목소리로 독립만세의 환호를 소  
리높이 터친 조국해방의 날, 말  
그대로 독립만세의 우뢰소리에  
동해가 끓고 산이 진동한 날이  
였다.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해방 만세!》

해방된 조선민족은 너무도 기  
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거리거  
리에 떨쳐나와 만세를 부르며 어  
깨춤을 추었다.

얼마나 고대하고 바라던 민족  
재생의 봄이었던가.

강도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겨  
40여년, 나라를 잃어 민족의 존  
엄과 권리, 나중에는 말과 글,  
이름석자까지 빼앗기고 갖은 학  
대와 굴욕을 당하며 마가울락엽  
처럼, 길가의 조약돌처럼 이리  
떠돌고 저리 짓밟히는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당해야 했던 우리 겨  
레였다.

망국은 누구도 원치 않았으나  
국력이 약했던 우리 민족이 당한  
너무도 슬픈 운명이었다.

당시 황제였던 고종이 조약체  
결을 끝까지 반대하며 백성들의  
의향을 들어야 한다고 하자 일  
제는 《군주제국》에서 《백성  
의 의향은 기피천만한 일》이라  
고 하며 황제의 비준도 우세달인  
도 없는 날조된 조약문서를 세상  
에 공포하였다. 그것이 바로 온  
겨레가 땅을 치며 나라잃은 슬음  
에 목놓아울고 수많은 애국지사  
들이 망국의 한을 풀고 자결의  
길을 택하게 한 1905년의 《을사  
5조약》이었다.

군대가 약하고 총대가 약해  
산천초목도 사람도 피눈물에 젖  
고 《시일이방성대륙》으로 강산  
을 허비던 해방전 조선의 비참  
한 모습을 놓고 당시 한 시인은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  
도 봄은 오는가》라고 피겨어 절  
규하였다.

수난과 절곡의 캄캄한 어둠  
만이 짙어가던 이 땅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민족재생의 밝은  
빛을 주시었으니 이 나라에 동터  
는 해방의 아침은 그이께서 항  
일무장투쟁을 벌리신 백두산에서  
밝아왔으며 온 겨레는 해방의  
은인이신 수령님의 업적을 자자  
손손 길이 칭송하고있다.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1945. 10. 14.)

수난많은 민족의 아들로 탄생  
하시어 겨레가 당하는 피로움과  
슬픔을 뼈에 새기신 수령님께서  
아버님이 쓰시던 벼루에 먹을 갈  
아 《조선독립》이라는 글을 쓰실  
때 이 나라의 운명은 그이의  
어깨우에 무겁게 실려였다.

그이께서는 14살 어린시 나이  
에 압록강을 넘으시며 조선이 독  
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  
으리라 애국의 맹세를 굳게 다지  
시였다.

그때로부터 장장 스무해!  
어머이수령님께서 헤쳐오신 험  
산준령, 사신의 고비들, 천고의  
밀림, 광야의 비바람과 눈보라  
만리 파란만장한 철혈의 로정을  
어찌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 있  
으랴.

《E. C》의 해불이 떠오른 화

전이며 길림, 무송, 교하, 할빈,  
동화, 오가자, 산간마을 내도산  
부락에 이르러까지 수령님께서  
광막한 대지에 투쟁의 씨앗을  
뿌려가시던 그 이슬길, 가시밭길  
은 얼마이며 때로는 강낭지집 한  
두점으로 끼니를 에우시고 때로  
는 머슴으로 가장하여 우물가의  
얼음도 까시며 조국해방을 위  
해 헤치신 고행의 길은 그 얼마  
인지 모른다.

갓 창건된 무장대조를 이끄시고  
남만으로, 다시 북만으로 이어  
가시던 원정의 길이며 처장주요적  
근거지에서의 악전고투와 남파자  
로부터 북대장정에 이르는 고난  
의 행군의 나날들...

항일의 혈전만리길을 헤치시는  
그 나날, 언제나 조국을 마음  
속에 안으시고 왕재산, 보천보,

무산지구 등 조국땅 곳곳마다  
에 해방전의 불길을 지퍼올리신  
백두산청년장군의 혈전의 로정을  
백두산의 눈보라는 오늘도 길이  
전하고있다.

사면팔방으로 악착스럽게 달려  
드는 침략군과의 혈전, 박달나무  
도 얼어터지는 혹한과 생명을 위  
협하는 모진 굶주림, 천교령의  
눈보라...

그뿐이 아니였다.  
그 나날에 사랑하는 어머님과  
동생, 삼촌을 잃으시고 빨찌산의  
추도가속에 생사고락을 함께 하  
던 귀중한 전우들과 영리별해야  
하시었던 수령님의 슬픔과 고뇌  
는 이루 말할수 없이 가슴아픈  
것이였다.

하기에 그이의 항일대전의  
만단사연이 자자구구에 담겨진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구  
독한 한 재미동포연론인은 이루  
말 못할 숭엄한 감정과 격정이  
가슴속에 차올라 차올라 회고록의 갈  
피에 쏟아지는 눈물을 견줄수  
없었다고 하였다.

조국해방은 수령님께서 주체  
사상의 빛발로 조선혁명의 진로  
를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  
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이룩된 민족사적위업이었다.

일제기 력사는 강대국들이 작  
은 나라를 동정하고 약한 나라  
인민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선사  
한 전례를 알지 못했다.

한민족의 자주권은 오직 그 민  
주체제의 주체적인 노력과 불굴  
의 투쟁에 의해서만 보존하고 생  
취할수 있다는것을 깊이 통찰  
하신 그이께서는 겨레의 힘을 하

나로 묶어세워 민족해방투쟁을  
벌리기 위한 로선을 내놓으시였  
고 조국해방의 유일한 길은 무장  
투쟁을 벌리는데 있다는 사상을  
밝히시였다.

강력한 혁명무력으로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을 해방해야 한  
다는 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  
고 백두밀림에서 반일인민유격  
대의 창건으로 항일대전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수령님께서서  
동성서적, 승천입지, 일행천리,  
적의 력량을 분산하면 유격대  
는 력량을 모아 하나씩 때려없  
애고 적의 력량을 집중하면 아  
군은 분산되어 적의 작을 뜯  
어내는 전법, 약한 적, 피로한  
어머이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을  
깊이 칭송하고있다.

《갈지자》모양으로 행군하  
다가 굶이들에서 되돌아앉아

따라오는 적들을 담배기는  
《갈지자》전법, 옆으로 슬쩍 빠  
져 적들로 하여금 제편끼리 싸  
우게 하는 신묘한 망원전술을  
비롯한 천재적인 군사전략과 전  
술로 일제침략군을 쥐락펴락하  
시며 승전의 개가를 높이 울리  
시였다.

신출귀몰하며 천변만화하는 조  
선인민혁명군의 신묘한 전술과  
전법에 일제의 백만관동군이 별  
별 떨었고 전쟁광신자 사무라이  
들이 넋을 잃었다.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이 존함은 백두산과 더불어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안겨든 재생의  
서광, 인생의 봄빛이었으며 조국  
해방의 력사적위업에 몸과 마음  
을 다 바치게 하는 승리와 신념  
의 기치였다.

어머이수령님은 도란에 빠졌던  
우리 민족에게 재생의 새봄을 안  
겨주신 은인이시며 이 나라의 명  
맥을 다시 이어놓으시고 영원한  
번영과 통성의 새 기원을 열어  
놓으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위대한 어머이이다.

하기에 식민지노예살이에서 벗  
어나 해방된 조선의 새 주인이  
된 겨레는 어머이수령님께 대  
한 한없는 고마움과 흠모의 마  
음을 담아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지어  
목청껏 불렀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옥  
암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옥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옥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으시  
며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  
만리를 헤쳐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아주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해방후부터 고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오로지  
나라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 조  
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오늘도 겨레는 탁월한 령수를  
모신 민족의 력사는 무궁하며  
존엄과 자주권은 굳건히 지켜진  
다는 진리를 가슴깊이 새겨안고  
어머이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을  
깊이 칭송하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 사설 민족의 태양을 받들어 자주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자

조국이 해방된 때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러 어느  
덧 76번째의 년륜이 새겨지  
고있다.

해방의 그날 온 삼천리에  
서 끓어번졌던 민족의 열화  
같은 감격과 환희가 외세가  
제멋대로 그어놓은 38°선에  
의해 분렬의 아픔으로 바뀌  
였다.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  
그 10년이 무려 일곱번 하  
고도 또 6년이 지나도록 분  
렬이 지속되고있는것은 참을  
수 없는 민족사적비극이 아  
닐수 없다.

나라의 분렬은 반민단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가로막  
고 온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  
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  
고있다.

피줄도 언어도 문화도 하나  
인 북과 남이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비정상적인 사태  
는 세기를 이어 지속되고있  
다. 조국이 해방되던 날 태

어난 《해방동지》들의 머리  
에는 흰서리가 무겁게 드리  
워 더이상 지속시킬수 없는  
민족분렬의 아픔을 절감하게  
하고있다.

나라의 분렬로 우리 민족  
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은  
한두마디의 말이나 글로써  
다 표현할수 없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외세  
에 의해 나라가 분렬된 첫날  
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  
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  
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  
하게 령도하시였다.

어머이수령님께서서 조국통  
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밝  
힌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  
하시어 나라의 통일위업수행

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  
지침을 마련해주시였으며 민  
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  
족을 묶어세우시어 조국통일  
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시고  
더욱 강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내놓  
으신 민족대단결의 사상과  
리념, 그이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간애와 민족애는 각계층의  
동포들을 민족적단합과 조국  
통일의 길에 과감히 나서게  
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수령님께서서 제시하신 조국통  
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  
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  
원칙으로 정식화하시고 민족대  
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어 조  
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  
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오늘도 한분분의 백두산위인이  
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  
사상과 로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며 통일  
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조국해방의 그날로부터 세  
월은 흐르고 시대는 멀리 전  
진하였다.

이제 더이상 우리 민족은  
북과 남으로 갈라져 분렬의  
고통을 지속시키며 살수 없  
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  
상과 제도의 차이보다 유구  
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우리 민족의 민  
족적공통성과 민족공동의 리  
익이 더 크며 우리 겨레의 통  
일열망은 8월의 폭양보다 더  
뜨겁다.

우리 겨레는 온 민족의 단  
합된 힘으로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고 76년전 온 강토를 뒤  
덮었던 해방의 환희를 통일의  
환희로 이어가야 한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3대원  
칙에 판명되어있는 기본정신

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  
철한 관점과 림장, 든든한 배  
짱과 자신심을 가져야 한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  
로 통일되어 강대해지는것을  
경고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민족분렬의 오랜 력사가 보여  
주는 뼈저린 교훈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  
는 우리 민족을 영원히 갈라  
놓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지배  
자로 군림하려는 외세의 간  
악과 전횡을 절대로 용납하  
지 말아야 하며 조국통일문  
제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민  
족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풀  
어나가야 한다.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외세에  
의해 진행되는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행  
위이며 반통일행위이다.  
민족자주의식을 쫓고 민족  
자주강력을 마비시키는 사대

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  
격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은 그자체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  
족적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위  
업이다.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데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  
해나가는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없다.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큰뜻  
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  
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  
과 제도의 차이가 같은 민족  
끼리 불신하고 대결해야 할  
리유로 될수 없으며 계급과  
계층의 주의주장과 리해관계  
가 민족이 단결하는데 장애  
로 될수 없다. 북과 남, 해  
외동포들은 사는 곳은 서로  
다르지만 조선민족의 한 성  
원으로서 통일애국의 한마음  
한뜻으로 민족대단결의 대하

에 합류해나서야 한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  
하고 동족사이의 불신과 적  
대감을 부추기는 외세의 분  
렬리간책동과 그에 편승하는  
일제 행위를 허용하지 말야  
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사화적인 문제이며 조국  
통일의 필수적전제이다.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 배  
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  
조선당국이 끝끝내 강행해나  
신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조  
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넘긴  
하는 온 겨레의 분노를 더욱  
격발시키고있다.

내외반통일호전세력의 광  
란적인 북침전쟁도발책동은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하  
라 거족적인 자주통일대행진  
을 힘차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  
하지 않는다면 그가 누구든  
참혹한 희생자의 운명을 면

할수 없고 민족의 존재자체  
가 위태롭게 된다.

외세와 함께 벌려놓은 합  
동군사연습은 명백히 동족  
사이의 대결과 불신을 더욱  
초래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  
로 되고있다. 남조선의 각계  
층 인민들을 비롯하여 평화  
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가  
반전평화수호의 기치를 더  
높이 들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  
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이 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  
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  
는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하  
라 거족적인 자주통일대행진  
을 힘차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  
하지 않는다면 그가 누구든  
참혹한 희생자의 운명을 면



# 백두산이 낳은 또 한분의 위인



조국해방의 날을 맞으며 공화국인민들은 민족의 성산 백두산을 우러른다.

항일의 혈전마리를 헤치며 조국해방의 역사적업무를 안아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만고홍상이 어려있는 조종의 산 백두산.

하늘을 찌를듯 한 피부리들마다에 민족의 기상이 응축되어있고 천지의 맑은 물에 조건의 넓이 어려있는 백두산이 온 겨레가 우러르는 희망의 등대로 되기 시작한것은 그곳에서 항일대전의 총성이 울려 퍼지던 그 시기부터였다.

그 날 우리 민족은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일제의 백만대군을 취약파락 하시는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로 뜻을 피우며 해방의 날을 그리었다. 일제침략자들은 빨찌산 김대장 그 존함만 한번 들어도 사시나무 떨듯 하였고 우리 민족은 그이에 대한 존경과 호모심을 안고 백두산을 우러랐다.

그래서 백두산 그 이름과 더불어 우리 민족은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제일먼저 떠올렸다.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은 민족의 성산 백두산과 더불어 또 한분의 위인을 숭엄히 우러르고있다.

백두산의 역적같은 신념과 의지로 곁쌍이는 예로와 난관을 뚫고 헤치시며 백두의 기상으로 공화국의 힘과 지위를 세계의 중심에 세워주시는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다.

그이는 백두의 넓과 기상을 한몸에 체현하시고 불어오는 력사의 광풍을 호되게 쳐갈기시며 이 조선을 승리

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공화국이 잘살고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적대세력의 전대미문의 책동으로 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막아 나서는 예로와 난관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백두의 역센 기상으로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시며 새로운 전진의 활로를 열어

나가고계신다.

경애하는 그이의 굴할줄 모르는 역센 신념, 맞받아 나가는 공격정신은 그대로 백두산정신이다.

사람들은 지금도 두해전 몸소 백마를 타고 백두의 첫눈을 맞으시며 백두산정에 오 르 시 던 경 애 하 는 김정은동지의 열정에 넘치신 모습을 잊지 못하고있다.

그때 사람들은 호기찬

말발굽소리 높이 울리며 항일의 전구들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모습을 보이며 나라없던 그 세월 일제의 백만대군을 전멸케 하시며 백두의 산발을 주름잡으시던 전설속의 빨찌산 김대장의 모습을 떠올렸었다.

둘이켜보면 경애하는 그이께서 공화국을 이끌어오신 지난 세월은 모진 시련

과 난관이 증첩되어온 간고한 길이었다.

적대세력의 침략위협과 제재압박등이 날로 가중되고 앞에 준엄한 난관이 가로놓여 들어닥쳐 말그대로 남들 같은 하루한시도 지탱하기 힘든 그런 시련과 난관의 연속이었다.

허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백두의 공격사상, 공격방식으로 적대세력의 압살광풍과

시련의 험로역경을 뚫고헤치시며 이 조선을 승리의 길로 이끄시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조국 앞에 준엄한 난관이 가로놓일 때마다 백두산에 오르시어 새로운 결심과 의지를 다지시고 빨찌산식행군으로 강국건설전열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백두의 공격정신과 투쟁기풍이 온 나라에 나래치도록 하시었다.

을 해에 들어와서도 그이께서는 국가적인 중요회의들을 련이어 소집하시고 국가와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확히 밝혀주시였으며 인민들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더 큰 전진과 승리를 이루하도록 힘과 용기도 거듭 안겨주시었다.

그이께서 온 나라 인민의 가슴속에 심어주신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이 땅에서는

어떤 눈부신 전변과 기적들이 펼쳐져왔는가.

한해가 물라보게 세 거리가 일떠서고 이르는 곳마다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현대적인 문화휴식터들이 수없이 일떠섰으며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 력사가 이 땅에 펼쳐졌다. 자력갱생의 기치드높이 자기 공장, 자기 도를 대표하는 명제품, 명상품들이 늘어나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지하전동차, 무궤도전차들이 거리를 누비고 있다. 또 자연의 광란이 휩쓸고간 피해지역들에 시대적락후성과 재해의 흔적을 가시고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일떠서 인민의 기쁨 날로 커만 가고있다.

지금 수도시민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기 위한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도 절세위인의 뜨거운 인민사랑을 받들어 군인들과 건설자들이 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추진하는 대전설전투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앞길에 막아서는 모든 역풍을 백두의 칼바람으로 뚫고헤치시며 이 땅에 새로운 전진의 시대, 력동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그이의 모습에서 공화국의 인민들은 인민을 믿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항일대전을 선포하시고 승리로 이끄시어 민족재생의 새봄을 안아오신 항일의 전설적영웅 빨찌산 김대장을 보고있다.

진정 백두의 기상과 정기를 한몸에 안으시고 이 조선을 승리로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을 모시어 공화국은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떨치며 신심드높이 광명한 미래로 나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 또다시 내리신 인민사랑의 영명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먼저와 닿는 것이 어머니사랑이다.

얼마전 《로동신문》에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한편의 보도가 실리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합경남도당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긴급소집된 소식이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합경남도당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와 큰물에 의해 발생한 피해상황을 료해하고 공병부대들로 피해지역의 파괴된 도로들을 시급히 복구하며 도에 주둔하고있는 인민부대들을 동원시켜 도의 력량과의 협동밑에 피해복구를 다그쳐 끝낼데 대한 지시를 하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피해복구용 주요자재를 국가예비부에서 해하여 긴급보장하도록 대책하시면서 중앙에서 재정부적으로 합경남도 피해복구사업을 강력히 지원할데 대하여 명령하시었다.

폭우와 큰물피해를 입은 합경남도인민들을 위해 내려진 사랑의 명령이었던것이다.

흔히 영명이라고 하면 긴급하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내려지는 임무나 지시를 생각한다.

하나 큰물과 폭우로 피해를 입은 합경남도인민들을 위해 군사명령을 하달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다.

지난 6월에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진회의에서 합경남도인민들이 제일 관심하고 바라는 절실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행조치

를 취하려는것이 이번 전진회의의 핵심사항이라고 언명하시면서 인민생활안정에 조급이라도 이바지하려는 총심으로 친히 서명하신 특별명령서를 발령하시었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정이 흘러넘치는 경애하는 그이의 명령들을 접할 때마다 온 나라 인민은 어려운 때일수록 더 뜨겁게 외치는 어머니의 사랑을 온 넋으로 절감하였다.

지난해 여러차례 들이닥친 큰물과 태풍은 공화국의 여러 지역들과 함께 합경남도에도 엄청난 피해를 몰아왔다. 많은 살림집들이 파괴되고 적지 않은 공공건물들과 농경지들이 침수되었다. 피해가 너무나 커서 당황하고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어찌할바를 몰라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바로 이러한 때 피해지역을 제일먼저 찾아주시분이 계시었으니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었다.

큰물과 태풍의 흔적이 력을 가지고 언제 또 자연의 광란이 들이닥칠지 모를 위험천만한 곳을 남먼저 찾으신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며 재해지역 인민들은 불행에 당한 자식을 맨 먼저 찾는 어머니를 떠올리는것만 같아 누구나 목메어 흐느껴울었다.

자연재해를 입은 합경남도과 합경북도들에 급파할 건설설비장비물자와 설계, 자체 수송보장문제를 비롯한 구체적인 대책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하느님같은 사랑에 충정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도안의 많은 일군들은 인민군지휘성원들과 함께 인민생활을 안락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피해복구전투를 다그쳐 나가고있다. 피해지역들에 급파된 조선인민군 공병부대들이 견인불발기의 지기로 기동로를 열어나가며 복구작업을 확대해갈 때 여러 피해지역들에서 살림집건설을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사랑은 기적을 낳는 힘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 땅에서 이룩된 모든 기적과 전변이 그러하듯이 이제 머지않아 합경남도의 큰물피해도 반드시 가세지게 될것이며 합경남도의 피해지역 인민들은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다.

강영성

은 기간에 큰물과 태풍피해를 가지고 고통한 인민의 보금자리들이 일떠서는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다.

지금도 사람들은 새집들이 하는 날 피해복구지역의 인민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그것은 령도자와 인민이 혈연의 정으로 굳게 이어진 공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감동깊은 화폭이었다.

그때로부터 1년도 안되어 또다시 피해복구에도 부른 명령에 접하게 되었으니 정녕 인민의 불행을 가서주는 일을 가장 중대한 일로 여기시며 온갖 중대조치를 다 취해주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뜨거운 인민사랑의 세계에 누군들 눈물을 적시지 않랴.

둘이켜보면 인민을 위한 고생은 나의 직업이라고, 고생을 물어 인민의 기쁨을 얻기 위해 가는것이 나의 길이라고 하시며 위민헌신의 자욱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그이이다.

인민을 위해 거대한 업적을 쌓으시고도 그 모든것을 큰 산속의 모래알로 여기시며 사랑하는 인민에게 더 많은 행복을 안겨주시러 낮이 밤이나 모든 정력과 심혈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친어버이라 부르며 받들고 따르는 이 나라 인민이다.

지금 합경남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그이의 하느님같은 사랑에 충정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도안의 많은 일군들은 인민군지휘성원들과 함께 인민생활을 안락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피해복구전투를 다그쳐 나가고있다. 피해지역들에 급파된 조선인민군 공병부대들이 견인불발기의 지기로 기동로를 열어나가며 복구작업을 확대해갈 때 여러 피해지역들에서 살림집건설을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사랑은 기적을 낳는 힘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 땅에서 이룩된 모든 기적과 전변이 그러하듯이 이제 머지않아 합경남도의 큰물피해도 반드시 가세지게 될것이며 합경남도의 피해지역 인민들은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다.

강영성

## 인민이 주인된 새세상에서

첫 녀성대의 위

조선에출영화 《요람》의 주인공원형인 김득란녀성은 온 나라가 다 아는 공화국의 첫 녀성대의원들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해방전 빈농가정의 여덟번째 자식으로 태어났다.

제제적 가난한 살림살이와 남존녀비의 오랜 관습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름도 가지기 전에 피덩이체로 깊은 밤 뒤산 나무밑에 내버려졌었다고 한다.

다음날 저물녘에 마을의 한 로인이 어이를 안고 찾아왔을 때 김득란녀성의 어머니는 어기를 안고 온

3 대 며슴군이 영웅으로

조국청사에 유명명망의 위훈을 남긴 전파의 인민군용사들속에는 38°선의 호랑이라 불리웠던 공화국영웅 변익두도 있다.

그는 태천산골의 가난한 화전민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 머슴살이를 하던 아버지가 어린 그에게 유일하게 남겨놓은것은 지주집 풀머슴이라는 노예의 명이었다. 정용으로

키기 위해 손에 총을 잡았다.

그후 그는 새 조국건설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100여차례의 전투에 참가하여 7대의 적비행기를 싸멸하고 200여명의 적병을 소멸하는 혁혁한 위훈을 세웠다.

1951년 8월 변익두에게는 공화국영웅칭호가 수여되었다. 해방된 새 조국은 머슴군을 영웅으로 안아올렸던것이다.

천덕꾸러기 소년 이 로동계급출신의 첫 상으로

《나는 아홉살에 남의 집 아이보게를 했다. 12살에는 허리에 뼨찌를 차고 밥벌이를 해야 했다. 그 세월에는 길가의 막돌까지도 나같은 로동자를 업신여겼소. 어느분께서 나라를 구원해주시고 겨레를 구원해 주셨소?》

여러분, 김일성장군님을 따름시다!

이것은 주체35(1946)년 10월 수품발전소를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고 최재하가 로동자들앞에서 터친 감격의 목소리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의 심장속에 간직된 신념을 귀중히 여기시어 수품발전소 지배인으로, 건설상으로 내세워주시었다.

최재하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 위훈을 세웠다.

1951년 8월 변익두에게는 공화국영웅칭호가 수여되었다. 해방된 새 조국은 머슴군을 영웅으로 안아올렸던것이다.

천덕꾸러기 소년 이 로동계급출신의 첫 상으로

《나는 아홉살에 남의 집 아이보게를 했다. 12살에는 허리에 뼨찌를 차고 밥벌이를 해야 했다. 그 세월에는 길가의 막돌까지도 나같은 로동자를 업신여겼소. 어느분께서 나라를 구원해주시고 겨레를 구원해 주셨소?》

여러분, 김일성장군님을 따름시다!

이것은 주체35(1946)년 10월 수품발전소를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고 최재하가 로동자들앞에서 터친 감격의 목소리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의 심장속에 간직된 신념을 귀중히 여기시어 수품발전소 지배인으로, 건설상으로 내세워주시었다.

최재하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 위훈을 세웠다.

1951년 8월 변익두에게는 공화국영웅칭호가 수여되었다. 해방된 새 조국은 머슴군을 영웅으로 안아올렸던것이다.

천덕꾸러기 소년 이 로동계급출신의 첫 상으로

《나는 아홉살에 남의 집 아이보게를 했다. 12살에는 허리에 뼨찌를 차고 밥벌이를 해야 했다. 그 세월에는 길가의 막돌까지도 나같은 로동자를 업신여겼소. 어느분께서 나라를 구원해주시고 겨레를 구원해 주셨소?》

여러분, 김일성장군님을 따름시다!

이것은 주체35(1946)년 10월 수품발전소를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고 최재하가 로동자들앞에서 터친 감격의 목소리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의 심장속에 간직된 신념을 귀중히 여기시어 수품발전소 지배인으로, 건설상으로 내세워주시었다.

최재하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 8.15에 다시 새기는 귀중한 쉼리 - 망국은 순간이고 복국은 천년이다 -

조국해방 76돐을 맞는 지금 겨레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회고록 《새기와 더불어》에 남기신 뜻깊은 구절이 되새겨진다.

“망국은 순간이요 복국은 천년이다. 그것이 항일혁명 20년의 로정을 걸으면서 내가 얻은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잃기는 험해도 찾기는 험드니 바로 조국이라는 뜻입니다. 순간에 잃은 조국을 찾느라고 수십년, 지어는 수백년의 고생을 해야 하는것이 이 세상의 준엄한 리치입니다.”

◇망국은 순간

지난 세기 초엽 당시 조선봉건정부는 겨우 1만명도 안되는 군대병력에 그나마 무장장비는 화승총밖에 없었었다. 그러나 일본제국주의는 《신홍군사강곡》이었다. 일제는 대포와 함선을 끌고와 황제인 고종에게 《한일협상조약(을사5조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고종이 조약체결

을 끝까지 반대하며 백성들의 의향을 들어야 한다고 하자 《군주제국》에서 《백성의 의향은 기피천만한 일》이라고 하며 황제의 비준도 옥새날인도 없는 가짜조약문서를 세상에 공모하여 하루아침에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반민란의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나라는 한순간에 망하고 인민은 치욕스러운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복국은 천년

한순간에 망국민으로 된 조선민족은 이 치욕의 력사를 끝질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야에 더운 피를 뿌리며 의병운동, 독립군활동을 벌리었다. 또 빼앗긴 국권을 되찾으려고 남부러소소 두가 눈물겨운 국제보상운동도, 3.1인민봉기와 6.10만세시위도 벌리었다.

그러나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던 강도 일제에

서 그 모든 노력은 한갓 처절한 몸부림에 불과하였고 우리 민족은 40여년간이나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원한의 하늘, 피눈물의 바다에 캄캄한 어둠뿐이던 이 땅에 민족재생의 밝은 빛을 안아오시러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14살 어린시절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너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과 대포를 휘두르는 강도 일제와는 무장으로 맞서싸워야 한다는 사상을 밝히시고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와의 전면대결전을 선포하시었다.

그때로부터 수령님께서 외무적지인도 국가적후방도 없이 항일의 험산준령, 사선의 천만고비들, 파란만장한 철혈의 로정을 넘고 헤치시며 조국해방의 역사적업무를

안아오시었다.

그 길에서 사랑하는 혈육들을 잃으시고 귀중한 전우들과 영리별해야 하는 상상의 아픔과 슬픔을 겪지 않으면 안되시었다.

이렇듯 모진 풍상고초와 가슴아픈 희생, 20년간의 피 어린 싸움으로 조국해방의 역사적업무를 안아오신 수령님이시었다.

◇나라를 잃기는 쉬워도 찾기는 힘들다는 력사의 교훈을 철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나라를 다시 찾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것이 중요하다. 복국은 바로 천년이기때, 20세기초 우리 겨레가 당한 망국의 비극, 오늘날 지구상 도처에서 펼쳐지는 라민족들의 수난에 찬 운명도 결국은 힘이 약해 당해야 하는 불행한 운명이다.

나라를 빼앗기지 않자면 군력이 강해야 한다. 자위

의 군력은 국력중의 제일국력이다.

이 심원한 진리를 깊이 통찰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해방후 나라의 군력강화를 위해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뜻과 위업을 이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도 적대세력의 발악적책동으로 공화국앞에 어려운 시련과 난관이 겹쌍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선군령도로 국가방위력을 굳건히 다지시어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지켜주시었다.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의인 천출명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나라의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었다. 하여 이제 그는 누구도 공화국을 넘겨다탈수 없게 되었으며 나라와 민족의 천만년 밝은 미래가 튼튼히 담보되게 되었다.

김영준







# 호전광들의 북침전쟁연습소동을 준렬히 단죄한다

## 시론 자멸을 재촉하는 전쟁불장난

전쟁은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인류사에 기록된 거의 모든 전쟁들도 그렇고 무장장비들이 첨단화된 현대시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지금 남조선에서 외세와의 야합일에 벌어지는 합동군사연습이 어느 순간에 핵전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도 역사적경험과 교훈이 웅변해주는 것이다.

더욱이 그 합동군사연습이 누구를 상대로,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된 《비밀》이다.

호전세력들의 타락에서 논의되는 것이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골자로 하는 작전 계획이고 그 실행을 보다 완비하기 위한 핵전쟁예비훈련이라는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 성격이 있다.

해마다 3월과 8월이면 어김없이 진행되는 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긴장과 대결적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에게 끼치는 정신물질적피해도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지금의 8월합동군사연습도 《연기》, 《축소》, 《중단》의 료가 분분하더니 끝내 강행하는 길로 나아갔다.

오늘 강행하려던 범죄를 레일로 미룬다고 《선행》으로 되는가. 연습의 규모를 조금 더 축소했다고 하여 적대적이며 침략적인 연습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인가. 아니다.

합마를 망치로 바꾸었다고 흥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규모와 형식이 어쨌든 선제적격, 《평양점령》 등의 침략적 성격은 변할 수 없고 언제, 어느 때에 진행되는 핵전쟁의 전주곡이 아니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격전전야의 긴장을 몰아오군 하는 그러한 전쟁연습을 《안보》로 포장하면서 수십년 동안 외세와 야합하여 《년례적》으로 벌여왔던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안보》를 운운하는데 외세와 야합하여 전쟁연습을 벌일 때마다 남조선인민들은 전쟁이 일어날까봐 불안해하고 조선반도의 정세는 극도에 이르곤 하였으니 비를 피한다며 물속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망동이 아니겠는가.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합동군사연습을 명백히 전쟁연습이라고 하면서 연기, 축소가 아니라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외국군대가 들어오면 돈을 받아내면서 땅을 빌려주는 데 남조선에서는 반대로 막대한 협세를 그 무슨 《유지비》로 섬겨받으면서 미군이 다른데로 갈까와 안질부질을 못한다.

또 친문학적역수의 자금을 뿌리며 첨단무장장비들을 사들이고 개발하고 하여서는 링 빈 산과 별, 바다에 쓰아대며 인민들의 협세를 바람에 먼지날리듯 허비한다.

그러면서도 《안보》를 위해서라고 하고 있으니 말그대로 손톱 끝은 줄은 알아도 염통 끝은 줄은 모른다는 격이다.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이 언제까지나 전쟁위협이라는 불안을 고스란히 감수만 하고 있어야 하는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은 남조선에서 각종 침략전쟁연습의 중단과 함께 미국의 침략무력과 무장장비들의 철거와 대조선적정정책의 철회에 있다는 것이 남조선민심의 주장이다.

위남소리 따라가는 눈먼 망아지처럼 외세의 꾸무니만 따라다니는 사대병자들의 굴종사상을 뿌리뽑아야 한다.

역사의 갈래에는 부정의의 불장난의 대가는 자멸뿐이라는 교훈이 새겨져 있다.

대결의 명석우에서 칼물고 뿔뿔기를 하는 어리석은 망동의 종말도 역시 다를바 없다.

정 필

전쟁단기 준비를 허비하기 위한 전쟁연습이

공화국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야합한 침략전쟁연습을 끝끝내 강행하였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힘으로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변함없는 적대적본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태는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위험을 격발시키는 주되는 장본인, 화근으로서의 미국의 침략적본성과 이에 적극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의 배신적정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도적이 제발 저러하는 식으로 연습규모가 줄어들었다는니 뭐니 하며 공화국의 분노와 내외의 비난여론을 녹잡아보고 뻔뻔스럽게 놀아내고 있다.

지어 《방어적인 훈련》으로서 북에 적대적이지 않다.

그러면서도 백일하에 드러난 전쟁연습의 침략적 성격과 저들의 도발방기를 합리화해보려는 말장난까지 부리고 있다.

하지만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고 비단보자기로 오물을 감싼다고 역한 냄새까지 없앨 수는 없는 법이다.

《년례적》, 《방어적》이라는 너울로 가리우기에는 너무도 침략적 성격이 명명백백한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이다.

연습의 규모가 어떠하든,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든 공화국에 대한 선제적격을 골자로 하는 작전계획의 실행 전제조건을 보다 완비하기 위한 전쟁연습, 핵전쟁예비훈련이라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

남조선인민들도 해마다 3월과 8월이면 미국과 당국의 전쟁광기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위험이 격발되고 있다고 하면서 전쟁연습 중단, 미군철수 등을 요구하는 반면, 평화수호투쟁에 적극 떨어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공화국은 이미 침략적합동군사연습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주되는 요인으로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 대해 경고를 보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동족과의 화합이 아니라 외세와의 동맹을, 긴장완화가 아니라 긴장격화를, 관계개선이 아니라 대결이라는 길을 택하였다.

부질없는 침략전쟁연습으로 초래될 파괴적 후과에 대한 책임은 군사적대결을 선택한 도발자들이 전적으로 지게 되어 있다.

본사기자 황금숙



## 더욱 달아오르는 반전, 평화 열기

남조선에서 외세와 야합하여 강행하는 합동군사연습의 중단과 평화수호를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남조선 언론 《노컷뉴스》, 《민플러스》 등은 각지에서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 중단과 《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 사회단체들의 투쟁이 벌어진 데 대해 보도하였다.

총청북도 8.15 자주통일대회 추진위원회는 9일 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 민중의 투쟁을 가로막는 보안법을 폐지하라.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는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3일까지 선전전을 벌이는 한편 주말인 14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총부 자주통일대회》를 열기로 하였다.

민주로총 22기 중앙통일선봉대(중앙통일선)는 10일 민주로총 울산지역본부에서의 발대식을 시작으로 4박5일간의 활동에 돌입한다고 한다.

소성리, 평택, 서울 등지에서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한미일동맹반대! 국가보안법폐지!》의 목소리를 높이며 대구, 당진, 평택의 투쟁현장을 찾아 연대투쟁도 벌일 예정이다.

각 지역에서도 지역통선대(지통대)가 꾸려져 《한미연합전쟁연습중단! 한미일동맹반대! 국가보안법폐지!》의 웨침을 전 지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역통선대의 전체 규모는 2,0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앞서 전국민중행동의

주최로 《한미연합전쟁연습중단》을 위한 대표자 평화행동》이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서울의 미국대사관앞에서 진행되었다고 한다.

대표자들은 연설문에서 8월 6일 마지막으로 대표자 평화행동은 끝났지만 전국민중행동의 《한미연합군사연습중단》을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고 하면서 지난 3월 남측에서 강행된 《한미연합군사연습》과 4월 《대북적대행위》로서 남북관계를 더욱 위태롭게 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뢰와 화해를 위한 적대행위금지부터 최근까진 풀어나가야 하며 그러자면 8월의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서울신문》은 《국제전자자동차엑스포》(만국박람회)와 《한국전자차사용자협회》, 《제2회 한반도 피스로드(Peace Road) EV행진》(평화의 길 전기차대장정)를 개최한다고 9일 보도하였다.

《백두에서 한나까지, 한나에서 백두까지 EV대장정》이란 구호를 걸고 진행되는 대장정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대장정은 오는 9월 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립진각공원에서 출발하여 경기도 화성과 세종시, 광주, 목포, 제주 등의 로선으로 달릴 계획이라고 한다.

본사기자 류현철

## 평화의 너울을 벗어던지라

김태봉

백송이 배인 불장난의 악습 외세앞에 쪼들려 사는 그 가련한 그리도 털어내기 죽을맛 같으나 개꼬리 삼년 가도 황모 못된다더니 역시 옛 격언이 그르네 없구나

전쟁연습광기에 열이 든 광신자들 그렇게 신물나게 떠들던 신뢰란 어설뿐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고 끈질기게 쓰고있는 평화의 너울은 대결홍심 가리운 포장지에 불과했구나

굵은 지팡이 그림자도 굵다 했거늘 동족이 아닌 외세를 정처없이 따르고 평화 아닌 전쟁을 바라는 홍심을 지녔기에

이제 알게 되리라 배신자들은 차려진 기회를 배반한 후 어떤 것인지 리성없는 선택으로 자초한 구렁렁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스디슨 후회속에 흐르는 시간이 독특히 새겨졌구나 동족을 노린 전쟁연습을 《안보강화》라고 구차스레 변명하며 목이 쉬게 광고해도 자루속의 송곳처럼 그 목적 감출수 없거니

발버둥치며 자행하는 전쟁연습으로 얻을것은 랭대와 파멸뿐 선의에 적대로 대답한 망동 동족을 직으로 상대한 광기

그 망동과 광기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확고하고 우리가 같길도 명백하거니

독특히 알아두라 외세와의 전쟁연습 중단하지 않는 한 사대굴종의 시궁창속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 민생구제는 외면, 전쟁준비엔 혈안

항간에서 《청개구리》 하면 방정맞게 꼭 반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우리 겨레와 인류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 전쟁준비에 협세를 퍼붓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꼭 그 격이

아니겠는가. 얼마전에 벌어진 방위사업 추진위원회회의라는 것도 그러하다.

회의에서 심의결한 다음 세대호위함의 개발과 실전배치, 수중유도무기인 《청상어》의 성능개량사업, 신행전술정보통신체계 《블록-1》 사업...

이러한 계획들이 누구를 목표로, 무엇을 위해서 세워지고 진행되는가 하는 것이다.

남조선호전세력이 운운하는 그 누구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것은 침략전쟁준비를 가리우기 위한 상투적 변이고 《안보위기》란 동족을 반대하는 대결책들을 가리우기 위한 한낱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러한 궤변으로 친문학적역수의 협세를 뿌리며 첨단무장장비를 사들이고 개발하여왔으며 그 누

《개발에 비선》이라는 말도 있듯이 《침단무기를 구입해 참고에 쌓아둔다고 강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첨단무기를 가져도 기강이 무너진 군대에는 희망이 없다》고 군부를 비난하는 남조선민심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악성정면병사태로 더욱 도란에 빠진 민생을 구제하는데는 끝돈을 쓰는 것도 손을 떨면서 침략전쟁준비에는 협세를 몰수트 하는 군부호전세력들에게 남조선민심은 침을 뱉고 있다.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의 무모하고 무분별한 망동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전쟁부나비의 운명은 제가지른 불길에 대담해준다.

본사기자 한일혁



얼마전 남조선 언론 《민플러스》는 8월에 북침을 노린 전쟁연습이 강행되고 미국이 《동맹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현실세를 분석하면서 외세에 기댈 것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길로 당당히 걸어가야 할 때가 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언론은 《미국은 한미일군사협력과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COVID-19) 재류행가운데 한미당국은 8월 한미연합전쟁연습을 강행하

## 평화를 위협하는 주범은?

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따른 대북봉쇄정책에서 《대북적대적정책》을 리용하고 있는 미국은 끊임없이 《한반도준비태세를 위해 동맹국가와 긴밀히 협력,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당국은 명칭변경, 조개기훈련, 해외원정훈련 등으로 전

연습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대북봉쇄와 《대북적대적정책》에 남조선을 리용하는 미국에 기대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한편 남조선 언론 《연합뉴스》는 미해군이 지난 3월 17개 시간대에서 5개 합대가 참가한 대규모 해상훈련 《LSE-2021》을 시작했다고 보도하였다.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동서맹진이 한창이던 1981년 이후 최대규모의 해상훈련으로 된다고 한다.

언론은 미해군이 이 훈련을 통해 후해, 지중해, 남중국해 등지에서 동시에 작을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조선반도 주변국들에게 보여주려 한다는 외신의 분석을 전하였다.

남조선 언론 《JTBC》도 조



# 출발하기도 전에 덜컥거리는 《경선버스》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를 바라는 남북민심의 지향은 절세의 위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흠모로 표현되고 있다.

《한국대학생정보연합》(대진련)이 8월 15일 인터넷을 통해 제3차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모임 발표대회》를 진행하겠다고 한데서도 잘 알 수 있다.

대진련은 2018년 3월 남조선의 진보적인 청년학생운동단체들로 구성된 연합조직으로서 보수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대학생단체이다. 창선에서 미군기지, 미국대사관 등지에서 벌여지는 반전, 반미, 평화수호투쟁의 앞장에는 언제나 대진련 회원들이 있었다.

특히 대진련은 남녘의 각계층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기운이 날로 더욱 높아가는 속에서 2019년 1월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모임》을 결성하였다.

2019년 6월과 2020년 7월 2차에 걸쳐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모임 발표대회》를 진행하여 남조선 각계층의 관심을 집중시킨 대진련은 이번에 제3차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모임 발표대회》를 준비하면서 청년들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하여는 통일이 되어야 하며 통일에 가

## 망울수 없는 남녘의 민심

장 큰 걸림돌인 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북에 대해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잘 아는 것이 기본이며 이를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모임)을 운영하면서 연구해온 자료들을 공개하겠다고 밝히었다.

대진련은 이번 발표대회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철위인상과 위민헌신, 후대사랑에 대해, 그리고 문명강국건설을 힘있게 이끄시는 탁월한 명도력에 대해 준비한 29건의 연구자료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2019년부터 3년째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대진련이 발표한 연구자료들에 대한 조차하며 이번에도 각계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청년대학생들속에서 날로 높아가고 있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존경과 흠모심은 그대로 통일을 바라는 남녘민심의 남원과 의지의 반영이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에 나아가는 민족의 지향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김영준

내부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집단을 가리켜 망하는 높의 집엔 싸움이 잦다고 한다.

## 《패싱》론란, 누구 때문에

요즘 《국민의힘》내부에서는 당지도부와 《대선》 후보들 사이에 《패싱》(무시) 현상이 적잖게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 대표가 후보 선출경쟁을 앞두고 10여명의 후보들이 참가하는 공개행사를 벌이자 새로 입당한 윤석열과 최재형은 물론 이전 보수야당의 대표들이었던 류승민과 홍준표 등도 개인사정을 구실로 참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두고 《리조석패싱》이 아니냐는 당내 지적이 나왔다. 더우기 윤석열은 《왜 오라가라하라》고 하면서 다른 후보들도 《보이코트》

남조선에서 《국민의힘》이 천박하고 불상식한 녀성관으로 하여 녀성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 한다.

당대표 리준석과 《대선》 후보들인 류승민, 하태경 등은 《양성평등》, 《능력주의》를 구실로 《녀성할당제》 폐지를 주장하고 《녀성가족부》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른 《대선》 후보인 윤석열은 《녀성권리확대주장론》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남녀사이의 건전한 교제를 막

## 보수의 버릴수 없는 유전인자 - 녀성천시

같은 리명박과 박근혜의 《보라빛공약》에 속아 표를 주었다가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통탄하였었다. 리명박 《정권》 시기에 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투쟁 때만 보아도 어머니들이 끌고 나온 유모차의 갓난아이들도 경찰의 최루액세례를 받았고 나ieren 너학성이 경찰의 군화발에 무참히 짓밟혔었다.

2009년 한해만도 남조선에서는 녀성실종사건이 3만 3 600여건, 강간 등 성범죄의 피해자는 녀성 1 000명당 17.9명이었다. 련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가 바로 그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경제대통령》이라 자랑하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겠다던 리명박이 한것이다. 《리명박에게 표를 주었던 내 손가락을 찍고싶다. 망들로》라고 통탄하던 남조선녀성들이 《2MB》인 리명박에게 준것은 《깨고싶은 입》 후보, 《재봉틀상》이

《준비된 녀성대통령》이라 광고하며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던 박근혜는 또 어떠했는가. 《지옥같은 한국》을 의미하는 《헬조선》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바다에 수장시켜 어머니들의 피눈물이 지금도 마르지 않은 끔찍한 《세월》호참사가 일어났고 수많은

《국민의힘》 것들이 비뚤어 장된 《세월》호의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수년이 지나도 록 진상규명조차 안되어 아직도 그 원혼은 바다속에 떠다니고있는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농민과 탄발을 피워놓고

《조선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박근혜, 리명박에 대한 《8.15특별사면》을 고이댄다. 《주장》이라는 것이 가판이다.

《돈 한푼 받지 않은 깨 그릇 대통령》 그렇다면 3일에 한번으로 1년에 130여번 돌아다니는 박근혜의 웃음은 누구 돈으로 마련한것일까? 해외에 나갈 때마다 새옷을 바꾸어 입근 하여 《패션스타》로 불리우는 박근혜가 4년간 옷값으로만 3억 8 000만 원을 썼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한푼》도 안되는가 하는 것이다.

《울림머리》를 한다고, 일 굴의 잔주름을 편다고 미용 거는 없다. 《일본인구의 80%가 전후세대로서 그들에게 사치를 계속할 속명을 지워서는 안된다.》고 고이대면서 저들의 침략력사를 정당화하였었다.

뿐만아니라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로 모독하고 중, 고등학교교과서들에서 일제의 성노예범죄기록을 지워버리고있으며 지어는 성노예, 《위안부》라는 표현조차 쓰지 못하게 하고있다.

또한 도이쾨른의 베를린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곳에 설치되어 일제의 성노예범죄를 고발하는 《평화의 소녀상》들을 《구히 유감스러운 일》, 《력사의 유이 될수 있》는 계면을 늘어놓으며 당장 철거시켜야 한다고 분주함을 피워내고있다.

일본의 이러한 행태는 국제법적전지에서 보나 인류도덕적전지에서 보나 절대 용납할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정의와 인류평화에 대한 우롱이고 도전이다.

에 그 뻔뻔함에 기가 찬다. 천박표를 구걸하는 모양새라고 강력히 성토했었다.

《윤석열이 정치를 시작하고 내내 한것이라고는 지역감정에 기대 구걸, 녀성혐오를 조장해 구걸, 대선불복을 조장해 구걸, 이제는 천박에게까지 굴신대는 구걸정치를 하고있다. 아무리 표가 급해도 어설픈 거짓말과 구걸로 국민에게 마음얻을수는 없다.》, 《이리 불렀다 저러 불렀다. 이소트 우화에 나오는 박쥐가 떠오른다.》는 비난과 함께 조만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에게 면회를 갈지도 모른다고 조소하고있다.

한편 보수패거리들속에서도 윤석열의 이중적행태에 대한 개란이 터져나오고있다. 《윤석열이 박근혜구속사를 반대했다고 말했다는데 무슨 정신없는 말인지 모르

는것은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2007년에 발견된 일본판동 《위안부동원계획》에 의하더라도 1941년 80만명의 관동군에 《결연한 위안부는 2만명》이며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에 2만명의 녀자 《동원》을

요구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10대의 소녀로부터 유부녀와 임신부에 이르기까지 마구 《사냥》하여 굴고가 할명의 녀성에 수시명씩 탈려들어 갖은 짐승들을 다하고도 모자라 반항하거나 도망칠 경우 야수적인 방법으로 무참히 학살한 일제의 죄악은 산천초목도 분노에 떨 특대형죄악이다.

인류력사는 침략자들의 수많은 인건유린행위를 기록하고있지만 수십만에 달하는 타민족의 녀성들을 무리로 끌어가 가장 가혹하고 잔인하게 인권과 육체를 유린말살한 성노예범죄는 찾아볼수 없다.

하기엔 남조선인민들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당시)와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을 조직하고 일본군성노예피해자를

그리나 남조선에서 첫 일본군성노예피해자의 증언이 나온지 오랜 세월이 흐르고 성노예피해자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있지만 아직까지도 일본반동들은 성노예범죄에 대해 한마디의 인정과 사죄도 하지 않고있으며 거꾸로 배상과 범죄의 책임에서 벗어나보기 위해 천천히 나아내고있다.

지금도 일본의 고위정책들은 《위안부가 군에 폭행, 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

것인가.》고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은 한수 더 떠서 《멸치, 고등어, 돌고래》 등의 표현을 써가며 다른 후보들을 깎아내리는 발언으로 지도부와 맹목히 맞서기도 하였다.

객주가 망하러니 집단만 들어온다더니 부당한것들이나 새로 입당한것들이 저마다 제 잘남척 하며 당지도부와 은근히 《협박투기》를 하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들간의 《패싱》론란은 당내 갈등을 더욱 조장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 《굴러온 돌》 대 《박힌 돌》

《대선》 후보들간의 갈등과 대립도 만만치 않아 갈수록 팽팽강강이다. 그에 대해 남조선언론 《매일신문》은 《(박힌 돌) 류승민, 원희룡, 하태경》, 《굴러온 돌》(윤석열, 최재형)들에

공세》라는 기사를 실었다. 《제1야당에서 《굴러온 돌》과 《박힌 돌》사이의 갈등이 불거지고있다. 이른바 《굴러온 돌》은 지지세력확장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있고 《박힌 돌》은 《정치

가》고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은 한수 더 떠서 《멸치, 고등어, 돌고래》 등의 표현을 써가며 다른 후보들을 깎아내리는 발언으로 지도부와 맹목히 맞서기도 하였다.

객주가 망하러니 집단만 들어온다더니 부당한것들이나 새로 입당한것들이 저마다 제 잘남척 하며 당지도부와 은근히 《협박투기》를 하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들간의 《패싱》론란은 당내 갈등을 더욱 조장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들간의 《패싱》론란은 당내 갈등을 더욱 조장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들간의 《패싱》론란은 당내 갈등을 더욱 조장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들간의 《패싱》론란은 당내 갈등을 더욱 조장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들간의 《패싱》론란은 당내 갈등을 더욱 조장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들간의 《패싱》론란은 당내 갈등을 더욱 조장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들간의 《패싱》론란은 당내 갈등을 더욱 조장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들간의 《패싱》론란은 당내 갈등을 더욱 조장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들간의 《패싱》론란은 당내 갈등을 더욱 조장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들간의 《패싱》론란은 당내 갈등을 더욱 조장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들간의 《패싱》론란은 당내 갈등을 더욱 조장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들간의 《패싱》론란은 당내 갈등을 더욱 조장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들간의 《패싱》론란은 당내 갈등을 더욱 조장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들간의 《패싱》론란은 당내 갈등을 더욱 조장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 사실상 물건너간 합당

최근 남조선언론들은 《국민의힘》과 《국민의 당》의 합당이 감정대립으로 번져지고 합당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하면서 《국민의힘》 대표의 지

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하고있다. 그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표는 합당시한을 8월 8일 까지로 정하고 8월 첫주가 분수령이면서 마지막노선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들간의 《패싱》론란은 당내 갈등을 더욱 조장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들간의 《패싱》론란은 당내 갈등을 더욱 조장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들간의 《패싱》론란은 당내 갈등을 더욱 조장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들간의 《패싱》론란은 당내 갈등을 더욱 조장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들간의 《패싱》론란은 당내 갈등을 더욱 조장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들간의 《패싱》론란은 당내 갈등을 더욱 조장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들간의 《패싱》론란은 당내 갈등을 더욱 조장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들간의 《패싱》론란은 당내 갈등을 더욱 조장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들간의 《패싱》론란은 당내 갈등을 더욱 조장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들간의 《패싱》론란은 당내 갈등을 더욱 조장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들간의 《패싱》론란은 당내 갈등을 더욱 조장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들간의 《패싱》론란은 당내 갈등을 더욱 조장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들간의 《패싱》론란은 당내 갈등을 더욱 조장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 《강굴》이라 하더니 《무굴》

남조선에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윤석열이 련이든 망언으로 하여 곤경에 처하면서도 또다시 천하악녀인 박근혜를 제가 구속하지 않았다는 천편만화 케변을 늘어놓아 각계의 비난과 조소벼락을 맞고있다고 한다.

얼마전 자기 당소속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은 2017년 2월 자기를 비롯한 특별검사팀은 박근혜를 비공판조사한 이후 불구속수사하기로 내적인 의견 일치를 보았지만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연장이 취소되면서 사건이 검찰로 이전되게 되었다. 결국 당시 검찰이 박근혜를 구속하였으며 이 일은 자기와 상관없이 없다고 황실수설하였다

는 것이다. 낮가죽이 곰발통만큼이나 두꺼운 뽀뽀수설이라고 해

올해 8월 14일은 남조선에서 일제가 저지른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공개증언이 처음으로 나온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자기가 일본군성노예로 끌려가 짐승도

낫을 붙일 온갖 통속과 비인간적 학대를 받는데 대하여 날같이 폭로하였다.

그후 수만명 수 많은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이 련사의 증언대에 나서 일제의 죄상을 폭로하였으며 구일본군의 야만적인 성노예범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들도 련이어 세상에 공개되며 인류사회를 경악케 하였다.

과거 일제가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강제연행, 강제 랍치하여 침략군대의 성노예로 부러먹다 못해 전쟁터까지 끌고가 마구 학살하였다



본사기자 김영준

##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 건축문화유산에 뽀친 검은 마수

오랜 력사적과정에서 우리 민족은 슬기로운 건축술로 도시, 성, 각종 건물과 건축 조소물들을 창조하였다.

조선건축은 특징지어지는 다양하고 풍부한 건축물들을 세워 민족의 생활양식과 생활정체, 조성의 기우공도에 맞게 창조되었을뿐 아니라 여러 왕궁과 채색장식, 조각과 내부장식유물들이 결합함으로써 하여 민족문화유산의 종합체를 불렀었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개시한 첫날부터 식민지 통치 기간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파피락탈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사업부터 시작하였다.

일제가 조선의 고건축에 대한 《조사》를 단행한것은 고건축물이 지질, 력사, 사회, 민족 등을 포함한 모든 정신적 및 미적관념의 총결정체 일뿐아니라 조선문화체의 총본산으로서 이것이 장악하면 조선의 문화체를 장그리 종합하여 파괴와 랍탈을 할수 있었기때문이었다.

조선에 대한 건축 《조사》를 통해 건축문화유산은 물론 조선문화체에 대한 종합적인 랍탈대장을 만들어놓은 일제는 이에 기초하여 수많은 조선의 건축문화유산을 파괴하고 랍탈하였다.

조선건축유산에 뽀친 검은 마수

《조선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박근혜, 리명박에 대한 《8.15특별사면》을 고이댄다. 《주장》이라는 것이 가판이다.

《돈 한푼 받지 않은 깨 그릇 대통령》 그렇다면 3일에 한번으로 1년에 130여번 돌아다니는 박근혜의 웃음은 누구 돈으로 마련한것일까? 해외에 나갈 때마다 새옷을 바꾸어 입근 하여 《패션스타》로 불리우는 박근혜가 4년간 옷값으로만 3억 8 000만 원을 썼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한푼》도 안되는가 하는 것이다.

《울림머리》를 한다고, 일 굴의 잔주름을 편다고 미용 거는 없다. 《일본인구의 80%가 전후세대로서 그들에게 사치를 계속할 속명을 지워서는 안된다.》고 고이대면서 저들의 침략력사를 정당화하였었다.

뿐만아니라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로 모독하고 중, 고등학교교과서들에서 일제의 성노예범죄기록을 지워버리고있으며 지어는 성노예, 《위안부》라는 표현조차 쓰지 못하게 하고있다.

또한 도이쾨른의 베를린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곳에 설치되어 일제의 성노예범죄를 고발하는 《평화의 소녀상》들을 《구히 유감스러운 일》, 《력사의 유이 될수 있》는 계면을 늘어놓으며 당장 철거시켜야 한다고 분주함을 피워내고있다.

일본의 이러한 행태는 국제법적전지에서 보나 인류도덕적전지에서 보나 절대 용납할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정의와 인류평화에 대한 우롱이고 도전이다.

지금도 일본의 고위정책들은 《위안부가 군에 폭행, 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

본사기자 김영준

진 녀성관, 녀성정책으로 하여 뽀친 검은 마수에 같은 망발들을 서슴없이 내뽀치지 않았었다.

아마 녀성천시는 보수패당의 버릴수 없는 유전인 모 양이다. 남조선주권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을 천대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는 최악의 녀성관을 가진 《국민의힘》이 민생을 론하고 《공정》과 《정의》를 운운하고있으니 낮가죽이 솥뚜껑같은 천편만화들이

아마 그런것들을 《대선》 후보선출경쟁무대로나 아니라 가장 듣기 싫고 거짓말을 잘하는 《깨대고싶은 입》 후보선출대회에 내보낸다면 리명박처럼 《재봉틀상》을 틀림없이 받을것이다.

《국민의힘》 것들이 비뚤어 장된 《세월》호의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수년이 지나도 록 진상규명조차 안되어 아직도 그 원혼은 바다속에 떠다니고있는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농민과 탄발을 피워놓고

《조선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박근혜, 리명박에 대한 《8.15특별사면》을 고이댄다. 《주장》이라는 것이 가판이다.

《돈 한푼 받지 않은 깨 그릇 대통령》 그렇다면 3일에 한번으로 1년에 130여번 돌아다니는 박근혜의 웃음은 누구 돈으로 마련한것일까? 해외에 나갈 때마다 새옷을 바꾸어 입근 하여 《패션스타》로 불리우는 박근혜가 4년간 옷값으로만 3억 8 000만 원을 썼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한푼》도 안되는가 하는 것이다.

《울림머리》를 한다고, 일 굴의 잔주름을 편다고 미용 거는 없다. 《일본인구의 80%가 전후세대로서 그들에게 사치를 계속할 속명을 지워서는 안된다.》고 고이대면서 저들의 침략력사를 정당화하였었다.

뿐만아니라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로 모독하고 중, 고등학교교과서들에서 일제의 성노예범죄기록을 지워버리고있으며 지어는 성노예, 《위안부》라는 표현조차 쓰지 못하게 하고있다.

또한 도이쾨른의 베를린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곳에 설치되어 일제의 성노예범죄를 고발하는 《평화의 소녀상》들을 《구히 유감스러운 일》, 《력사의 유이 될수 있》는 계면을 늘어놓으며 당장 철거시켜야 한다고 분주함을 피워내고있다.

일본의 이러한 행태는 국제법적전지에서 보나 인류도덕적전지에서 보나 절대 용납할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정의와 인류평화에 대한 우롱이고 도전이다.

지금도 일본의 고위정책들은 《위안부가 군에 폭행, 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

본사기자 김영준



# 민족의 역사를 빛내어갈 애국의 마음향고

— 평양시 민족유산보존사에서 —

역사의 유구함을 증명하는 유적유물과 자연유산 등을 보며 감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가치있는 민족의 재부를 발굴, 등록하고 보존 관리하는 과학연구사업은 말처럼 쉽지 않다.

최근 평양시민족유산보존사에서 시안의 문화유산보호 사업을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양시민족유산보존사는 시안의 역사유적유물과 명승지, 천연기념물, 비물질유산 등을 발굴, 등록하고 보존 관리, 보수와 관련한 학술적 및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며 민족유산들에 대한 자료기, 정보교류를 진행하는 과학연구중심,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곳 연구사들은 우리 민

족의 슬기와 재능이 비껴있는 현광정과 평양성 북성의 남문인 전문문, 삼석구역 장수원동의 고구려벽화무덤, 강동군 함흥리동굴유적 등 시안의 백수십개 역사유적들을 더 잘 보존관리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을 세우고 있다.

또한 조선봉건왕조시기 사립교육기관이었던 통곡서원의 《통곡초당기적비》와 일진조국전쟁시기 의병대를 조직하고 고강히 싸운 립중앙의 묘비, 《강남의혈사기》 등 옛 비석들과 현판들의 금석문을 번역하고 역사유적으로 등록하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천연기념물 연구실에서는 통악산샘물, 안학동반재배풍, 보통강약수, 백토새를 천연기념물로 새로 등록하고 보호하기 위한 대

책을 세웠다. 우리 민족사의 유구한 발전과정에 이룩되어 후세에 전해져온 정신문화적재부들을 비물질유산으로 등록하는 사업에서도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이곳 연구사들은 모란봉전설, 뜰치로비, 약침치로기, 평양온반, 떡국만들기, 두부앗기를 비롯한 15건을 국가 및 지방비물질유산으로 새로 등록하고 그 전통을 빛내어나가도록 하였다.

유산정보교류실에서는 시안의 역사유적, 천연기념물, 명승지에 대한 분포도를 작성하고 도서 《우리를 알자》의 속편 《선조들의 자랑》, 《역사를 통해 본 민족의 우수성》 등을 완성한것을 비롯하여 우리 민족의 우수한 유산들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있다.

기술도입실의 연구사들도 수기와, 압기와, 수막새, 압막새 등 기와의 종류별로 크기를 규격화하고 기와무늬와 색깔, 재질을 원상대로 보장함으로써 건물유적보존관리에 쓰이는 옛 기와들을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내밀고 있다.

귀중한 유적유물을 잘 보

존관리하여야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을 높여줄수 있고 찬란한 문화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다는 자각을 안고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는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시안의 역사유적들은 우리 민족의 유구함과 우수성을 전하며 빛나고 있다.

본시기자 홍병식



총석정은 절벽과 바위의 하나하나가 너무도 신기하고 아름다와 관동8경의 하나로, 통천강강으로 이름난 명승지이다.

총석이란 돌우물이라는 뜻인데 옛사람들은 이곳에 정자가 세워진 다음부터는 이 일대의 기암들도 모두 총석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봉우리의 비탈면에는 수천수백개의 모란 돌기둥들이 참살처럼 고고히 들어섰고 그것들은 거의 모두가 류사한 크기와 높이를 가지고 있다.

돌기둥의 대부분이 6각(혹은 8각)으로 되어있는데 모가 너무도 단단하며 끝이 미끈하다.

총석정들의 모양 또한 각각 각색이다. 람모양, 립총(인사성있게 곧바로 서있는것)모양, 와총(한가로운 누웠있는것)모양, 좌총(점잖게 앉은것)모양, 모여있다가도 흩어지는 모양 등 참으로 신비하기 이를데 없다.

점무는 파도가 밀려와 시꺼먼 큰 바위기둥들의 아래 도리를 물고뚫으며 하얗게 부서져나가는 모양 또한 불만하다.

총석정우에서 바라보는 조

동해의 경치는 한마디로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해야 할것이다.

특히 수령성을 타고 해가 커다란 불덩어리마냥 이글이글 타면서 서서히 솟아오를 때면 돌기둥들은 물론 하늘과

바다의 모든것이 붉게 물들여지는 일대 장관을 이룬다. 총석정의 벼랑끝에 서서 아래를 굽어보노라면 돌기둥의 아래부분이 떨어지나 그 공중에 떠있는듯 한 환각에 사로잡히게 되며 벼랑 위에 돌기를 물고있는 바다 제비, 바다오리들이 한데 어울려 날아에는 풍경은 모두의 정서를 한결 부드럽게 해

준다.

또한 돌기둥속을 파헤치고 용케도 들어앉은 소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었으니 기암, 청송, 창파로 멋진 조화를 이룬 총석정의 3대만물이라 이름짓고싶은 심정이다.

총석정에는 먼 옛날 하늘에서 내려온 4명의 신인이 놀고 앉다는 《사선암》, 웅 험장수가 풍궁으로 가는 돌다리를 놓다가 총석정의 경치가 하도 아름다와 그만두었다는 《돌다리》, 의종계 서있는 《부암》, 거북기를 현상시키는 《거북기바위》 등 여러가지 모양의 바위들이 있다.

바다물위에 솟은 총석정의 절벽경치는 바다에 나가서 보아야 그의 진미를 느낄수 있다.

본시기자



2017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선수 선진 김윤미선수는 2017년 동아시아축구련맹 E-1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조선팀이 편이 세번째로 우승컵을 들어올리는데 적극 기여한 여자축구명수이다.

사람들로부터 꽃명수, 득점명수로 불리며 사랑을 받고있는 김윤미선수는 9살 때부터 축구를 시작하였다. 공격수로서의 신속한 정황 판단과 빠른 이동, 대담하고

충성정에는 먼 옛날 하늘에서 내려온 4명의 신인이 놀고 앉다는 《사선암》, 웅 험장수가 풍궁으로 가는 돌다리를 놓다가 총석정의 경치가 하도 아름다와 그만두었다는 《돌다리》, 의종계 서있는 《부암》, 거북기를 현상시키는 《거북기바위》 등 여러가지 모양의 바위들이 있다.

바다물위에 솟은 총석정의 절벽경치는 바다에 나가서 보아야 그의 진미를 느낄수 있다.

본시기자

##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 여자축구명수 김윤미

위대한 차남기로 공격을 결속하는 김윤미선수의 장점은 경기들마다에서 남김없이 발휘되었다.

2017년 동아시아축구련맹 E-1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시작부터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의 실력이 높은데도 있지만 각 팀은 지난 기간 여러번 대진하는 과정에 상대팀의 장점과 약점은 물론 개별적수들의 특기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있었으며 그에 기초하여 경기준비에 상당한 힘을 들였던것이다.

김윤미선수만 놓고보아도 그는 2013년과 2015년에 이어 세번째로 이 선수권대회에 참가한것으로 하여 상대

팀에서는 득점명수인 그에 대한 방어를 보다 강화하였다.

김윤미선수는 공화국의 공훈체육인답게 경기 전기간 높은 정신력을 발휘하여 달리고 또 달렸다.

끈질기게 달려붙는 상대팀 선수들의 볼체속에서도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경기들마다에서 통쾌한 득점장면들을 펼쳐놓았다.

경기가 끝난 후 동아시아축구련맹에서는 대회 전기간 높은 실력을 발휘하여 팀의 승리에 이바지하였으며 가장 많은 득점을 한 김윤미선수에게 최우수선수상과 최우수득점선수상을 수여하였다.

본시기자

이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나 서자란 고향산천과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왜적들과의 싸움마다에서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냈다.

임진조국전쟁시기 우리 선조들의 반침략투쟁을 반영하여 나온 노래가 민요 《강강수월래》이다.

《강강수월래》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우리 선조들을 왜적을 쳐물리치는 싸움으로 적극 불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강강수월래》라는 말의 의미는 오랑캐(왜적)들이 물을 건너온다 또는 주위를 경계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요는 주로 녀성들이 바다가 곳곳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왜적들을 위협하며 그들이 쳐들어오는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불렀다.

당시 이 민요는 여러 지역에서 창작되었는데 노래마다 가사와 선율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 주제는 모두 애국적인 사상감정으로 판명되어있었다.

본시기자

지금에 와서 민요 《강강수월래》는 시대적요구와 미감이 맞게 더 훌륭히 다듬어지고 여러가지 형식의 예술작품으로 재형성되었다.

12/8박자로 되어있는 노래의 선율은 느린 부분과 빠른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노래는 먹인소리라와 반음의 소리가 연속 되풀이됨으로써 선율의 평이성과 간결성이 잘 보장되고 있다.

느린 부분의 선율은 어둡고 비장하면서도 무게있는 양상을 띠고있으며 빠른 부분의 선율은 활달한 리듬진행으로 힘있고 진취적이며 활기에 넘쳐있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 민족의 강한 성격특질을 엿볼수 있게 하는 민요의 선율은 독특한 음조와 강한 속도적 및 정서적대조, 진투적이며 랑만적인 선율로 하여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명과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본시기자

## 말단단위까지 확대되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

세계적으로 먼거리의료봉사의 도입은 정보화시대인 오늘날 해당 나라 보건사업의 발전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전국적인 먼거리의료봉사의 필요성이 보다 심각히 부각되고있지만 막대한 자금이 드는것으로 하여 경제가 발전되었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국한된 지역이나 대상에 한해서만 먼거리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진전시키는것이 국가의 시책으로 담보되는 공화국에서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리민병원들과 종합진료소와 같은 말단치료예방기관들에까지 확대 도입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아래단위 리민병원

들과 종합진료소들에 프로그라미제사업이 완료되었으면 리민병원을 거쳐 올해말부터는 정상가동을 보장하게 된다.

이 봉사체계를 운영하면 각 지방의 환자들에 대한 의료상방조를 주고 보건의료인력들의 기술가능수준을 현저히 높일수 있게 된다고 한다.

김만유병원에서는 권위있는 보건의료인들이 각 지방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주고있으며 의문시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서 먼거리의료봉사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 위급한 정황발생이 줄어들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병을 신속히 치료할수 있게 되었다.

또한 먼거리의료봉사에 의한 수술체계를 받아들이면 선진외과수술을 아래단위들

에 전송해 주어 기술전송을 선행시키고 수술시 문제가 발생하면 이 화상체계를 통하여 지도와 방조속에 수술성과를 널리 보급하고 적극 도입할수 있게 한다.

하기에 공화국의 먼거리의료봉사실태에 접한 여러 나라 인사들은 자기들의 소감을 이렇게 타놓았다.

—조선의 먼거리의료봉사체계야말로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오직 사회주의조선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자랑스러운 현실이다.

—조선에서는 무상치료제를 통하여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잘 운영되고있고 봉사내용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조선의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정말 우월하다.

본시기자 김철



### 단편소설

## 사랑하노라 (3)

글럼예성, 그림 김윤일

네가 돌아서려는데 그가 책상물림에서 까만 수첩 하나를 꺼내들었다.

《참, 유정동무. 가기 전에 한가지만 좀 설명해주시오. 동무의 실험일지를 보니 모노클로르초산에 티오류산대신 수산화나트륨을 반응시키는데 진공중류하지 않고 추출실험을 하는 이유는 뭐니까?》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쩔지 눈초리가 파르르 떨리는것을 느끼며 나는 눈을 내리깔았다.

파마약은 머리카락의 기본 성분인 케라틴섬유의 디술퍼드결합을 화학적으로 끊었다가 같은 상태에서 다시 회복하여 머리카락에 파장을 주는 약이다.

모노클로르초산에 티오류산 아니면 수산화나트륨과의 반응을 통해서 최종결과물이 떨어지는데 현재의 가장 난점은 산가스분해중 류산가스까지 모액속에 포함되면서 알지 못할 부산물이 섞이는것이다. 수습제보조제를 쓰지 않은 때부터 생겨난 현상이다. 그 때문에 우리 파마약은 냄새가 세계 나고 머리카락의 질을 담보하지 못했다.

3년이라는 세월과 더불어 112편의 실험만에야 본래보

다 냄새가 60%이상 적어지고 걸당도는 30%이상 상승한 파마약결과물이 나왔고 다량생산에 넘어가도 되겠다는 의견이 일지되었다.

그 마지막최종회의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새 실장인것이다.

《외국에서는 진공중류해서 뽑는데 생산량이 너무 적어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공중류냐 추출이냐가 문제는 아니지요.》

《그러니 역시 보조제문제 로구만.》

실장은 생각에 잠겨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다르게 없으면 전...》 나는 몸을 휙 돌렸다. 한시라도 그의 곁에서 멀리 사라지고싶었다.

그앞에만 서면 왜 호흡이 불편해지는지? 습관적인 거부감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하는 연구사업이 빨리 돼야 언리랑 큰어머리랑 다 좋아 한...》

큰아버지는 웃고말았다. 나는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시약에 48시간의 반응으로 무독성으로 넘겨 보조제로 리용하겠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연구소에도 이 계획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것은 반드시 나 혼자서 해야 할 일이다.

나는 파마약연구조 책임자이며 따라서 내에게는 계획된 날까지 연구사업을 마무리지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되 다시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수 없게... 장치를 조립하고 가스가 새 나가지 않게 문까지 꼼꼼단 아질했더니 실험실안은 한증칸을 방불케 했다.

반응이 시작되었다. 숨이 격격 막혔다. 조금만 문을 열었으면... 시원한 공기를 마셨으면... 아니, 이겨내야 해. 누구도 알아서는 안돼. ... 열시간... 36시간... 47시간... 48시간 32분... ...

조긴장상태가 끝났기때문이라는것을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나는 그 자리에 꼬꾸라졌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정과 하얀 벽이 나의 눈을 부시게 했다.

《이제 깨날 때가 됐습니다. 시약중독에 의한 호흡기장애와 극도의 피로로 인한...》

나직한 목소리가 누구에게나 내에 대해 설명하는듯 했다.

《유정동무... 모험적인 실험을 해서 새로운 보조제연구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실험계획을 제출했으면 해당 설비를 써서 그렇게 위험하게 하지 않는건데... 처녀가 너무 겁이 없습니다.》

토론회성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바람에 나는 머리를 숙였다. 그러다가 그 사람을 피쳐 바라보았다.

그 사람은 손목시계의 유리관을 오른손엄지손가락으로 자꾸만 탁아내고있었다.

고요한 방안에는 정적을 깨뜨리고싶은듯 유난히 청청 소리를 내며 들어가는 그의 손목시계초침소리만이 들려왔다.

다음날 나는 새로운 보조제에 의한 파마약연구방향을 연구소 토론회에 제출했다.

따뜻한 봄바람이 창밖에 놓인 일일초화분의 향기를 날라다 방안에 조용히 뿌리고있었다.

《유정동무... 모험적인 실험을 해서 새로운 보조제연구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실험계획을 제출했으면 해당 설비를 써서 그렇게 위험하게 하지 않는건데... 처녀가 너무 겁이 없습니다.》

토론회성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바람에 나는 머리를 숙였다. 그러다가 그 사람을 피쳐 바라보았다.

그 사람은 손목시계의 유리관을 오른손엄지손가락으로 자꾸만 탁아내고있었다.

류달리 번쩍이는듯 한 그 세계가 오늘은 웬 일인지 몹시 눈에 거슬렀다.

《정인동무 다른 의견이 없소?》

소장의 물음에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어딘가 날카로와 보이는 그의 얼굴에 쏠렸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더니 나의 뒤쪽 어딘가를 바라보았다.

《유정동무... 모험적인 실험을 해서 새로운 보조제연구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실험계획을 제출했으면 해당 설비를 써서 그렇게 위험하게 하지 않는건데... 처녀가 너무 겁이 없습니다.》

토론회성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바람에 나는 머리를 숙였다. 그러다가 그 사람을 피쳐 바라보았다.

## 민족요리

### 낙지꼬치구이

낙지에는 단백질, 비린닌, 콜린이 다른 물고기나 조개류보다 많다.

특히 낙지는 동맥경화 예방, 피로회복, 혈압낮춤, 독풀이, 대변이 잘 나가기 하는 작용, 성인병예방에 좋은 작용을 한다. 따라서 좋은 영양고 고혈압, 동맥경화, 소화기 안되어 밥을 잘 먹지 못할 때, 감기등이 나빠졌을 때 먹으면 좋다.

낙지 300g일때 파 50g, 사자고추 5g, 간장 5g, 다진 마늘 10g, 초간장 20g, 소금 2g, 후추 0.2g을 준비한다. 낙지는 절반 갈라 내장을 꺼내고 껍질을 벗긴다. 다음 안쪽에 가로세로 칼에임을 주고 길이 4cm, 너비 2cm 되게 썬다. 파는 토막내고 사

자고추는 편으로 썬다. 낙지에 소금, 간장, 후추 가루, 다진 마늘을 두고 무친다.

꼬치에 낙지와 파토막, 사자고추편을 엮바꾸어 꿰여 구워 찹시에 담고 초간장과 함께 낸다.



본시기자

## 흥미있는 우리 말의 유래

—《부리나케》

부리나케는 《불이 나게》에서 나온 말이다. 옛날에는 깊이 패인 돌에 나무가지를 넣고 손으로 세계 돌려 불꽃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불을 붙였다고 한다. 나무가지를 돌리는 손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빠르게 돌려야 겨우 불꽃이 일어났으므로 부리나케라는 말은 몹시 서두르거나 급해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다고 한다.

—《고주망태》

고주는 술을 거르는 틀을 의미하는데 그우에 망태기를 올려놓으면 술냄새가 배어 망태기전체가 술에 푹 절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고주에 올려놓은 망태기처럼 술에 푹드나도록 취하여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을 고주망태라고 한다고 한다.

본시기자